

똑똑한 사람도 속는다?



이승환
의
어드바이스

진실을 신뢰하는 마음은 인간관계의 미덕이지만 낮은 상황에서는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덜 받아들이고, 더 확인하라”는 조언이 있다. 아무리 그럴듯한 정보라도 무조건 믿지 말고 반드시 출처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금전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둔 대화라면 확인 절차를 거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친한 사람이 급하게 돈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 직원이라는 사람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때 즉각 믿지 말고,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 공식 번호로 재확인하는 방식의 2차 검증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순간의 의심으로 관계가 다쳐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으로 인생이 다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똑똑한 사람도 ‘확증편향’과 ‘자기과신’이란 덫에 빠져 사기에 걸려든다. 확증편향은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반박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인지적 경향이다. 또 자기과신은 자신의 판

단이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 평가하는 심리다. 지적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인지편향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성공의 원동력이 되지만 맹신은 금물이다. 큰 결정이나 투자를 할 때는 “내가 옳다”는 생각이 들수록 한 발 물러나 객관적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정보뿐 아니라 반대되는 의견과 데이터도 찾아보고 검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주변에서 제기하는 경고 신호를 가며 여기저기 말고 불편한 조언일수록 새겨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특히 지식인이나 전문가라면 “내 전공 분야가 아니면 나도 초보자”라는 겸손을 가지고 다른 분야의 사기성 정보에 대해선 남들보다 더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편향과 과신의 함정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권위자가 말한다고 무조건 사실인 것도 아니다라는 경구를 늘 기억해야 한다. 지난 2023년 적발된 창조투자자문 사건의 범인 엄모 씨는 본인을 투자 전문가로 포장하기 위해 실제로 영화, 골프, 게임 등 여러 유

망 업체에 투자해 고수익을 일부러 몇 차례 보여 줬다. 그 결과 ‘저 사람은 투자에 능한 업계 권위자’라는 신뢰가 시장에 형성되었고, 이후 그가 운영하는 P사 펀드에 기업 CEO와 자산가들이 앞다퉈 거액을 넣었다. 결과는 107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였다. 사회적 증거와 권위 남용이 결합하면 더 강력한 속임수가 탄생한다.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되 맹종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권위자의 조언은 참고하되 최종 결정 전에는 스스로 한번 더 검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의사의 처방도, 금융 전문가의 추천도 필요하다면 의견을 듣고 교차 확인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흔히 “이건 특별히 당신에게만 주는 기회”, “우리만의 비밀 정보”라고 유혹하지만 이런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제안일수록 의심해야 한다.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경험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이 지성인들의 사기 피해가 주는 교훈이다. ‘설마 내가 속겠어’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 신호다. 아는 것과 속는 것은 별개다.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취약점을 돌아보아야 속지 않는 현명함을 갖출 수 있다.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개최국의 침공 일지



김연세
(정책사회부)

12년 전 브라질 마라카냥 경기장에서는 축구 참극이 벌어졌다. 2014 FIFA 월드컵 개최국 브라질이 4강전에서 독일에 1-7 패라는 수모를 겪은 것. 당시 전반에만 내리 다섯 골을 꽂아 넣은 독일. 일찌감치 승부에 췌기를 박았다. 그럼에도 파상 공격은 그칠 줄 몰랐고 후반 들어 두 골 더 보탤다. 브라질은 종료 직전 한 골 만회하는 데 그쳤다.

이를 두고 말이 많았다. 상대 인방에서 굳이 그래야 했느냐는 것. 축구팬들 사이엔 이른바 ‘양학’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인다. 양민 학살이란 뜻이다. 브라질은 양민(약체)과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앞선 8강전에서 허리

부상 입은 네이마르가 빠진 상태에선 이빨 빠진 호랑이일 수밖에 없었다. 차 떼고 둔장기랄까. 다만 네이마르가 있었다라도 밀리는 전력이었을 거란 평가가 중론이다.

그 이전 대회 2010 남아공에서는 포르투갈이 북한을 무려 7-0으로 눌렀다. 포르투갈이 조별리그 골득실 다툼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는 양학의 전형적 사례로 거론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다. 누구의 오폭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수의 초등학생이 희생되고 무고한 시민들이 연일 생을 마감하고 있다. 금세 일단락될 것처럼 말하더니, 아니다. 계속 퍼붓는 형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의 감언이설에 넘어갔다는 소문, 또 개인 사정이 결합돼 잘못된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소문 등이 난무한다.

상대국 최고지도자를 단숨에 제거했다.

그이후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일련의 사태를 만들어 왔는지 불분명하다. 백악관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전쟁통에서 발을 못 빼고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타의가 맞다면 이스라엘일 가능성이 짙다. 그럼 이스라엘은 상대 진영 초도화시키고 뭘 더 파괴하려는 건지. 이란이란 나라를 지도상에서 없애겠다는 심산인가.

전후 사정이 어떠한 미국은 이 상황을 자초했다. 상호관계 전쟁을 벌이고 흐르무즈 전쟁에 선봉장으로 가담. 이를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이 싸늘하다. 해병·육군이 가세하는 지상전은 자국민도 절대 다수가 결사 반대할 것 같다. 미국은 울며를 월드컵을 개최해야 한다. 석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향후 불거질 수 있는 선수·관중·시민 안전 문제 등을 건의해 봄 직하다. 네타냐후한테.

/세종=kys@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0일 (음 2월 2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양보하면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가 생깁니다. **60년생** 주변에 자문을 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72년생**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84년생**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  **49년생** 건강이 걱정됩니다. 자세를 바꿔보세요. **61년생** 어려움을 이겨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73년생** 파란색이 참 잘 어울립니다. **85년생** 감정을 통제하고 재능을 보이지 마세요.
-  **50년생**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62년생** 대인관계에 있어서 작은 마찰이 생깁니다. **74년생** 모든 일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86년생** 집에서 휴식을 취하세요.
-  **51년생** 삶을 더욱 정열적으로 살아주세요. **63년생** 오랜만에 단맛을 보게 되는 흐름입니다. **75년생** 뜻하지 않았던 재물이 들어옵니다. **87년생**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있게 됩니다.
-  **52년생** 무턱대고 일을 맡았다가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64년생** 의리와 실속의 선택에서 괴롭겠습니다. **76년생** 재산을 상속 받습니다. **88년생** 골치 아팠던 애정관계가 해결됩니다.
-  **53년생** 방해자로 인해 사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65년생** 분수를 알아야 흥함을 면할 수 있습니다. **77년생** 말을 삼가고 음식을 조심하세요. **89년생** 도덕을 확실히 지켜 나가야 합니다.
-  **54년생** 여행길에 난폭한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66년생** 뒷사람에게 조언을 듣고 행동해야 합니다. **78년생** 현상유지 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90년생** 어려움이 겹치니 때를 기다려보세요.
-  **55년생** 주변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67년생** 사업상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9년생** 큰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91년생** 뜻밖에 인연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  **56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하세요. **68년생** 지금 현 위치에서 만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0년생**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소원이 성취됩니다. **92년생** 지금까지 평탄했지만 곧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  **57년생**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69년생** 일에 있어서 철저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81년생** 관계 구실을 조심하세요. **93년생**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좋습니다.
-  **58년생**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소식을 얻을 것입니다. **70년생** 귀하의 능력을 알아줄 귀인을 만납니다. **82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세요. **94년생** 직장인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할 것입니다.
-  **59년생** 역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차근차근 일을 처리하세요. **71년생** 지금 처한 상황에 만족하세요. **83년생** 침착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95년생** 아주 무난하고 평온한 하루입니다.



김상회의四季 궁궐과 오행

서울의 빌딩 숲 사이로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궁궐들을 걷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사람들은 오래된 건물이 주는 고풍스러움에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지만, 고궁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건 숨겨진 이유가 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조화를 꾀한 철학, 즉 음양오행의 철학이 고궁 건축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음양오행은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다. 음과 양은 모든 존재의 두 가지 성질을 뜻하고, 오행은 목화토금수 다섯 가지 기운이 서로 생하고 극하며 순환하는 원리를 말한다. 조선의 궁궐은 이러한 우주의 질서를 건축물 하나하나에 담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건물의 형태와 마당의 구성이다. 궁궐의 주요 전각은 높고 웅장한데 이는 하늘의 기운인 양을 상징한다. 반면에 건물을 받치고 있는 넓고 평평한 마당은 땅의 기운인 음을 의미한다. 궁궐의 중심에 왕이 국정을 논하는 곳은 햇빛이 잘 들고 시야가 트여 있어서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한 공간이다. 밝으면서 드러나는 공간이고 위쪽으로 치솟는 기운을 보여주고 있다. 왕과 왕비가 생활하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공간은 휴식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인데 지나치게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해서 음의 영역에 해당한다. 궁궐의 색깔에서도 오행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궁궐 기둥과 처마아래를 장식한 화려한 단청은 단순히 장식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방위에 따른 오방색을 사용하여 나쁜 기운을 막고 복을 부르려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궁궐은 단순하게 기능으로 나눈 공간이 아니라 각각의 역할에 맞는 기운을 배치해서 만든 건축물이다. 음양의 조화를 모두 계산해서 배치한 것이다. 궁궐을 산책하면서 느끼는 편안함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3			
8				2	7			
	7	1			9	6		
	8	2		7				1
			2	1				
3			4		2	5		
		6	9			5	7	
		7	1					9
	2				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프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7	1	9	2	8	2	6
6	9	8	7	2	1	2	8
2	2	9	8	8	6	9	1
2	9	2	9	7	8	6	1
9	8	8	1	6	2	7	5
1	6	7	8	2	5	2	8
9	2	9	6	8	8	1	2
7	1	2	2	9	8	6	8
8	8	6	2	1	7	9	2

8	1	9	2	8	6	7	2	9
6	8	2	7	9	2	9	1	8
2	9	7	8	9	1	8	6	2
7	2	8	9	6	2	1	8	9
1	8	6	9	2	8	2	9	7
2	9	9	1	7	8	6	8	2
9	6	1	2	2	9	8	7	8
8	2	2	6	8	7	9	9	1
9	7	8	1	9	2	2	6	